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 엄숙히 선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우선국방건설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를 위협계선으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민음성을 겸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접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s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결과를 통하여 우리 국가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중요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시험발사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이 로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 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

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위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변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담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핵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에 대하여 다스림 강조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전략핵무기부대 전투원들은 공화국핵무력강화에서 중대한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중요전략무기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시며 국방과학자, 전투원들을 열렬히 고무해주시고 국가핵전략무력강화를 위한 힘찬 진군길에 더 큰 힘과 백배의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절대충배와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앞으로도 강위력한 우리의 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건설하며 핵병기를 더욱 억척같이 틀어잡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길이길이 보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승리떨쳐온 격동의 한해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혁명의 도전과 격난을 뚫고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역세게 달려온 지난날과 달들을 되새겨보고 있다.

과연 그 무엇이 공화국인민들이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आरो세하게 하였는가.

공화국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 없고
우리 세대 바뀌어도 변함없으리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영원하리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조선에만 있는 특유의 참모습. 공화국의 백승의 무기 일심단결에 세인이 그처럼 경탄하는 사변적승리의 밑뿌리가 있다.

지금도 경축의 축포탄들이 연이어 터져올라 황홀하게 뿌려지며 일만강을 펼치었던 9월의 그밤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밤하늘가를 람홍색으로 물들이던 항공폭전병의 기백있는 강하 기고,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장쾌한 폭음속에 펼친 능란한 기교비행, 노래 《우리의 국가》의 승엄한 선율속에 펄펄 나뭇기던 찬란한 공화국기, 아름답고 희한한 축묘야경, 로동당시대의 대가 넘비로 거언히 서있는 민수대의 사당을 배경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공화국창건 74돌을 맞는 환희로운 그밤 태양같이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러 행사참가자들, 아니 TV로 행사를 지켜본 온 나라 인민이 터치던 열렬한 박수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평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혼연일체의 빛나는 화폭이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만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혈연

의 정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해온 격동의 해였다.

새해 정초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신데 이어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흥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제2차 초공당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참모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 백승의 원천으로 되어온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위대한 새 승리를 안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 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 력사의 순간들이었다.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가 흔들리는데 언제나 자신의 살붙이와도 같은 인민을 굳게 민수하고 휘황한 레일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온한해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자욱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에 얼마나 눈부신 기적들을 펼쳐놓았는가.

2월의 봄하늘가를 뒤흔들며 울려 퍼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편포은실농장건설착공식의 발파폭음에 이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설주의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휘황한 레일을 향해 활기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힘있게 실체한 승화거리 준공식과 수도중심부의 유서지은 명당자리에 행복의 별천지로 솟아오른 보통강간단타락식주래구 준공식,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행행던 편포은실농장 준공식과 한남방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곳곳의 농촌지역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더없는 긍지와 환희로 가슴을 높여가게 하는 자력번영의 창조물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정녕 잊지 못하고있다. 환풍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찾으신 지난 3월 현제적인 1만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내에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주체적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공

민수님의 절대 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 력사의 순간들이었다.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가 흔들리는데 언제나 자신의 살붙이와도 같은 인민을 굳게 민수하고 휘황한 레일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온한해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자욱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에 얼마나 눈부신 기적들을 펼쳐놓았는가.

2월의 봄하늘가를 뒤흔들며 울려 퍼진 화성지구 1만세대

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들.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공화국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이 땅에 이룩된 기적적 승리는 그뿐이 아니다.

뜻밖에 경내에 투입된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능는 방역전쟁으로 흘러온 지난 5월의 잊지 못할 그 날과 우리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심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고 사람들과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굳게굳게 확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

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시었으며 수도의 약국들을 찾았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하늘도 감복할 그 사랑을 불사약으로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이 일떠세워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렸다. 공장들과 전야마다에서, 이 땅 그 어디에서 하나하나 전진하는 통일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당중앙의 함도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악성비루스와의 방역전쟁을 성공적으로 평정하고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적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와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진정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진함을 모르는 사람과 믿음에 있었기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은 더욱 백배해지고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그 위대한 힘의 안아온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졌다.

행복의 별천지 경주동에 가보아도,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이룬 송화거리에 가보아도, 서해의 곡창지대 한남방에 가보아도, 나라의 공업도시, 과학도시가 자리잡은 함남방에 가보아도, 이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누구나 한복소리로 웨친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따르겠다고.

기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다고 하시며 온 한해 이 나라의 천만사람들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찬양

을 다해 따르고 받드는 인민의 일심단결로 뜻깊은 2022년이 하루하루 흘러갔다. 《나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2022년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이 나라 천만심장에 더 깊이 뿌리 내린 신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며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간다는 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새로운 진군의 모퉁이를 더욱 힘있게 내걸으며 이 땅 위에 거어어 세계가 우리르는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타락을 일떠세울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연제나 인민을 찾아리의 놓이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어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함께 온 일군들에게 남산재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무슨 건물을 앉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러나 어느 일군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남산재가 아버지수령님께서 평양시 복구건설계획도작성사업을 지도해주실 때에도 공지로 남겨두도록 하시며 오래동안 아껴오신 자리였기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남산재앞으로는 김일성광장이 꾸러지고 그 주변에 그코각은 건물들이 키투움하며 일떠섰으나 그곳만은 여전히 공지로 남아있었다.

어느날인가 한 설계인민이 그 좋은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것이 아쉽게 생각되어 저기에 다른 나라처럼 정부청사를 앉힐 안을 만들어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설계안을 론의에 붙여보지도 않았신채 부결하시었다.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이나 회관, 도서관, 문화전당과 같은 인민을 위한 건물을 앉혀야 한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었다.

인민을 위한 건물!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그해 12월 몸소 남산재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에는 이미 인민문화전당도 있고 학생소년전당도 있으니 여기에는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이곳에는 조선식으로 된, 교정미가 나면서도 웅장화려한 현

대적인 대도서관이 일떠서게 되었다. 대도서관의 이름을 김일성도서관으로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서관의 이름을 친히 《인민대학습당》으로 지어주시었으며 이 이름은 누구도 절대로 고치지던 안된다고 하시었다.

평양의 남산재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은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내세우는 공화국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이어가시었다.

수십년전 보통문에서 평양역에 이르러는 창랑거리를 건설하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다가 덩치가 큰 어느한 병풍식고층살림집위에 삐죽삐죽 솟은 콩크리트기둥을 보게 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무엇을 지으러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리고 800대라고 대답을올리자 장군님께서서는 한세대에 아이들이 세명씩 있는것으로 보아도 2 000명씩 녀를 쌓아놓고, 그런데 집위마다 차고를 지으면 그 술한 아이들은 어디서 놀라는것인가고 준철히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아이들의 놀이터를 꾸러주어야겠다고 라일리주시었다. 한 일군이 살림집과 차고사이의 공간에 놀이터를 꾸러면 어떻겠는가 하고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다 새로운 기둥들을 뽑아버리기가 아쉬워 그러는가고 되물으시며 저 콩크리트 기둥들은 구상해서 차고의 천정하에 더 떠받들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어린이들은 온 조국을 떠받들게 될 나라의 기둥감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꾸러줄때에는 온전하게 꾸러주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생각할것 없이 콩크리트기둥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마당도 넓게 닦아주고 늙은이들이 소풍할수

게 간단한 휴식장소도 꾸러주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차고대신에 꾸러진 아이들의 놀이터. 그이의 마음 찾자리에에는 항상 인민이라는 존재가 착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천품으로 이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지속적인 무더위로 세계의 맑은 나라 사람들이 피서지를 찾아다니던 주체107(2018)년 7월중순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성군에 자리잡고있는 어느한 인민군부대 비행장을 찾으시었다.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부대에 모신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이께서 이제 긴급명령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다정히 웃으시며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온것은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자고 온것이 아니라 함경북도인민들에게 남새농사를 지어주자고 왔다고 하시었다.

이윽하여 무연히 펼쳐진 비행장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둘러서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시면서 지도를 보시며 위치를 확인하시었다. 눈부러 아득히 펼쳐진 비행장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다는 끝없는 기쁨이 출렁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온갖 피로를 잊으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후 이곳에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중형농산물창고가 일떠서게 되었다. 가장 훌륭한 자리에 있는 언제나 인민이.

바로 여기에 공화국에서 인민이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이 비껴있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놓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은 오늘날 가장 존엄높은 인민, 부러운 인민으로 되고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더욱더 휘황한 레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윤평선

수필 한편의 시에 담아보는 생각

며칠전 나는 보통강기슭의 아름다운 구슬다락에 보금자리 편 행복의 주인공들을 취재하기 위해 한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에 들어서니 흥겨운 가족오락회가 한창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랑했으랴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잡아주시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승용차도 양벌도 로동자 다음에 있다고.

로동자의 이름은 수령님 계시에 빛나는 내 조국의 자랑 로동자의 삶은 수령님과 떨어지선 순간도 못사는 운명이어서 ...

저도 모르게 오락회에 심취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닌다는 그 집 아들이 출고있을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들으며 가슴속이 찢어질정도를 알수 없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대학에 다닐 때에도 그렇고 기차생활을 하는 지금에 와서도 한생 로동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추억하며 감회깊이 읊조는 한이 시를 여기서 들게 될줄이야.

《우리 아들은 이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치 인민이 자기를 위해 지는 시같다나.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한날에도 그렇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던 날에도 또 평범한 로동자인 이 아버지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던 날에도 자애는 이 시를 읊었다합니다. 정말이지 로동자

들의 긍지와 영예를 상징하는 좋은 시입니다.》 로동자들의 긍지와 영예를 상징하는 시! 결코 무시할 들을수 없는 말이었다.

로동에 대한 행복과 영예가 있고 로동자의 긍지와 자랑이 맥떡히 놓이는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비록 시가 창작된 때로부터 수십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에 와서도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는 최상의 영예와 최고의 행복을 상징하는 부름으로 되고있다.

시에서도 절절히 토로하였지만 내 나라의 로동계급의 세상, 로동자란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이름으로 되고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공화국창건 74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뭉가아 불러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머니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이 찬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로동자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고 그들을 친히 연회에 불러주시신 사실이.

어찌 그뿐인가. 송화거리에 이어 경지좋은 보통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세상에 없는 호화주택을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안겨주시고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랴. 로동자란 부름이 이렇듯 최고의 행복과 긍지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러주는 나라가 이 행성 그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자기도 로동자는 수난과 멸시, 가난과 수치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부유한자들의 향락과 쾌락을 만끽시키는 도주로, 아무리 뼈까지 일하고일해도 벗어날수 없는 불행고통으로 타락과 절망에 허덕이는 가슴 아픈 현실은 지나간 과거에도 오늘에도 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저 남조선에서도 로동자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불우하기 그지없다. 로동자들을 게,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통치배들과 재벌들을 저주하고 단죄하며 터치는 로동자들의 피터지는 절규가 하늘땅에 차넘치고 생존권을 요구하여 버리는 시위가 그칠새 없다.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 고공에서, 거리에서, 현장에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며 투쟁을 하지만 이들의 울분과 아픔을 그 누구도 돌리려고도, 가세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로동자에서 자기 집을 평생 가질수 없고 로동자에서 자식들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고 로동자에서 생의 마지막에서 해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곳이 바로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보라. 로동자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집을 무상으로 받고 세상에 없는 복과 락을 누리며 최상의 영예를 지니고 부럼없이 살고있다. 로동자들의 자식들의 운명도 로동자들의 관이한 운명처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있다.

로동이 천시되는 사회에서 로동자의 자식들은 마들림과 멸시, 모욕과 우롱의 대상이 된다면 로동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의 자식들은 모두의 존중의 대상이 되

김혜정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진다

온 나라 도처에 일떠서는 《경루동》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대규모 온실농장



뜻깊은 10월 이 나라의 동부지구에 회한한 온실바다, 련포온실농장이 눈부리 아득히 펼쳐져 만사람의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냈다. 280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에 1정보온실, 1 000㎡온실, 500㎡온실들이 850개도 넘게 들어앉아 말그대로 끝간데 없는 온실바다를 펼친 농장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련포온실농장은 앞서 건설된 증평온실농장에 비해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었다. 방대한 면적에 한모양새로 질서있게 앉은 반중용식2중막막수경온실들은 현대적인 수경재배기술을 받아들인 세계적수준의 온실들이다.

온실에서는 오이, 도마도, 고추, 수박, 배추, 진채 등 갖가지 열대남새들과 일년생들을 심고 자래울수 있으며 그중 모생육보장을 위해 지열난방관을 설치한 수심동의 모온실들에서는 일년내내 남새모를 키울수 있다. 2중막막체계와 보온이불로

보온효과를 높임으로써 무난 방조건에서도 남새생산을 할수 있으며 온실들에 무도양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할수 있다. 량경사면연결식유리도양온실과 10여동의 궁룡연결식막막도양온실들도 한계 호동의 부지면적이 1정보에 달하는것으로 하여 기계리용률이 높고 토양재배에 적합한 여러가지 남새들을 생산할수 있어 효과적이다.

동체로 화폭에 옮겨도 세상에 다시없는 결실이 되고 찬란을 불리일키는 명화가 될 광경은 온실바다에만 있지 않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개의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를 이룬 련포의 온실농장마을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련포온실농장건설을 올해의 최대건설정책과제로 내세우고 건설에 드는 자금문제, 자재문제, 시공에 참가할 련관부문들을 비롯하여 농장건설에서 나서는 천사만사를 다 떠맡아 풀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착공의 첫 발과 울린 때로부터 불과 230여일만에 리상오만만 그려보던 온실남새생산기지가 우뚝 솟아났다.

나라마다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있고 부지면적이며 현대수준을 자랑하는 온실농장들도 적지 않지만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건설되고 운영되는 대규모온실농장은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만 있을수 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인양 가없이 펼쳐진 회한한 온실바다! 이곳에서 공화국인민들은 눈부신 진흥의 새 력사를 써나갈 온 나라 농촌의 모습을 가슴벅차게 안아보고있다. 본사기자 홍흥식

농기계바다를 펼친 서해국창 황남



이해의 가을철에 서해국창 황해남도에서 대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동음이 황해남도의 드넓은 대지에서 울려진것이다.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포전마다에서 온정어린 농기계들을 가지고 가을걷이와 난알탈기를 하게 된 기쁨이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차 넘쳐났다. 농물높은 새형의 농기계들을 가지고 황남의 모든 시, 군들에서 지난해에 비해 한 주일이나 기일을 앞당겨 벼가을을 완전히 결속하였으며



난알탈기에서도 1.5배의 실적을 올리며 성과를 이룩해나갔다. 황해남도가 생겨 처음 보이는 기적은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기어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이 땅에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안아온것이다. 지난 9월 25일 해주시의 광장과 주변도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에 보내주신 5 500대의 새 농기계들이 짝 들어차 장쾌한 광경을 펼치었다.

여기를 보고 저기서 보고, 이 기계도 쓸어보고 저 기계도 쓸어만지며 수천대의 농기계들이 모두 우리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든 자력자재의 힘이라는 사실을 제논으로 확인하는 황남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은 더없이 컸다.

농기계 한대가 귀한 이때 새 농기계들을 수천대나 보내주시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민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거대한 전변을 낳는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한 황남의 대경사는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박차를 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하여

김화군에 회한한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지방공업혁명의 불화가 타올랐다. 중앙급식료공장 못지 않게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급식료공장의 자동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에서는 맛좋은 간장, 된장, 기름, 사탕, 과자, 산파실탄물, 빵 등 갖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져나오고 번듯하게 꾸러진 옷공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질 좋은 피

부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환경보호형, 절약형으로 꾸러진 종이공장에서는 생산되는 필기종이, 위생종이, 학습장을 비롯한 각종 종이제품들은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으며 비누, 수지그릇류, 목제품, 초물제품 등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장의 제품들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상점마다에 자기 고장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맛좋은 식료품들과 질 좋은 소비품들이 그득히 쌓여있어 주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 자기 군의 상표를 단 상품들을 사가고 다른 고장의 사람들이 저저마다 이 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찾고있는 광경은 볼수록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받아 자기 지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한해가 저물어간다. 남조선 각계층에게 있어서 이 한해는 과연 어떤 해였는가. 그것은 환멸과 저주, 불행과 고통의 날과 달이었다. 다름 아닌 윤석열역도때문에.

우려의 봄에서 분노의 겨울까지

우려와 실망이 시작된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마다에 울러났것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0.7%의 차이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윤석열역도에 대한 우려뿐이었다. 《도리도리》으로 불리우며 몸건사도 못하는 정치생동이, 《1일1방언》의 주책머리없는 사고, 손바닥에 《왕》자나 써가지고 다니는 미신쟁이, 온갖 부정부패혐의자, 《복선제타격》을 고아대는 호전광, 대결광... 풍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당선되기 바쁘게 청와대는 《불길》하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옮긴다. 관저를 옮긴다 하며 미신에 미쳐들어가는가 하면 경제위기로 민생은

후회와 불안으로 숨막힌 여름

전례없는 《검찰공화국》이 생겨났다. 제 옆구리에 끼고있던 검찰출신신부들, 친인척들로 《끼리끼리인사》, 《동아리정부》를 만든 윤석열역도. 그것은 정치보복, 정치테러로 이어진 파쇼독재의 변형인 검찰독재의 출현이었다. 역도는 민주개혁세력은 물론 정치적적수인 야당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탄압광풍을 일으키고 지어 자기가 몸을 담근 당의 대표까지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몰아대면서 심복들을 내몰아 끝내내 내뱉었다. 또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을 박해하고 탄압하였다.

절망과 울분으로 서리맺힌 가을

무릇 가을은 풍요롭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가을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겐 풍요가 아니라 빈손으로 한지에 나왔아야 하는 절망과 원성으로 가득한 가을이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속에서 가정들의 채무액은 무려 1조 5 500억US\$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빚더미에 깔려 질식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속에 9월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수많은 수재민이 생겨났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폭우로 대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집안에만 들어박혀있고 아래것들을 수해복구를 한담시고 폭우피해복구현장에 밀려가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망발을 쫓치며 허허다거리며 민심의 환멸을 자아냈다. 또한 막바지에서 해매이는

분노의 초불바다 펼쳐진 겨울

초불이 타오른다. 여기저기서 울러나오던 원성이 분노의 함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청소년 등 남조선 각계층이 분노의 초불을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대로 살수 없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 안하면 탄핵한다》,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친일매국노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본사기자 김정혁



《더이상 못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중적인 초불집회 전개, 청소년들까지 윤석열퇴진투쟁에 합세—

남조선사회를 인간생지옥,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 윤석열역적패권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또다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초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서울에서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5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을 개최하였다. 이날 각계층 참가자들은 16시부터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전국집중초불결의대회》, 《제2차 윤석열퇴진 중, 고등학교학생초불

집회》 등 사전집회들을 먼저 진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어 18시부터 기본집회에 들어갔다. 이번엔 《초불승리전환행동》은 인터넷에 《윤석열퇴진요구 100만명서명운동》에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는가 하면 현장에 가실친박들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LED초불, 가면, 손구호 등을 나누어주면서 각계층의 초불투쟁열기를 고조시킴으로써 25만여명이 초불투쟁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참겠다》고 웨치며 투쟁기세를 올렸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초불투쟁에서 집회참가자들은 구호합창, 노래공연, 《윤석열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제안 등으로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적극 밀쳐나실 의지를 표현한데 이어 2016년 박근혜탄핵초불투쟁때처럼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대규모행진을 진행하는것으로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5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을 끝마쳤다. 이보다 앞서 청소년학생단체인 《초불중고생시민연대》도 반《정부》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윤석열역도의 교육정책을 단죄규탄하면서 《윤석열(정권)을 중고대학생의 힘으로 끌어내리자》고 주장하였다. 집회에 이어 《초불중고생시민연대》는 《초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하는 대규모초불투쟁에 합세해나섰다.

본사기자 주광일

타오르라 분노의 초불이여

유현의

초불이 타오르다 분노가 타번진다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어둠을 사르며 암흑을 태우며 초불의 바다우에 터져오르는 격노의 외성 고요를 깨뜨린다 참을수 없는 중오가 커든것이다 더는 짓밟혀 살수 없는 몸부림이 용서할수 없는 죄악에 지른 불이다 막막한 앞날을 두고 가슴태우고 태우다 끝내는 이대로 못살아 추켜든 불이다 한밤중 쓸어드는 흉물물에 살려달라 애라게 태를 치던 세 모녀 모지라져 피가 나던 그들의 손이 수십만의 손들에 쥐여준 초불 부정과 부패로 찢든 더러운 악정하에 그대로 살겠느냐 정의가 지켜준 초불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생 호소와 절규로는 결코 바꿀수 없다 분노한 아버지들이 틀어잡은 초불

매일같이 전쟁의 화약배를 풍기는 땅에 자식들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 피발선 어머니들이 그려진 초불 보라 한명한명의 손들을 역도의 감언리설에 속은것이 너무 분해 가슴을 아프게 두드러던 손들이다 자식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불행과 고통의 눈굽을 찍던 손들이다 더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어 더이상 참고만 있을수 없어 분노와 증오의 불을 켜든 사람들 아니, 심장에 불을 달고 저주로운 세상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여 꺼지지 않으리라 서슬찬 증오의 불길 끄지 못하리라 초불의 저 바다 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고향 때까지 오, 고통과 불행으로 숨막히는 어둠 불길로 태우려 노도치는 초불의 바다 민중의 뭉친 힘 세상을 바꾼다



후을 때려다가 후을 불이 광역웅

얼마전 남조선의 윤석열역도가 출근길기자회견이라는것을 갑자기 중단해치워 여론의 비난을 또다시 받고있다. 언젠는 《국민과 소통》하는 새 《정부》의 탈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며 출근길에 기자들앞에 서서 낮간지러운 소리를 많이 하던 역도가 자기를 위해 만든 출근길기자회견을 왜 없애지쳤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후을 때려다가 후을 더 불이는 자리가 되어서 췌던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도가 취입하자마자 출근길에 기자들앞에 나서는 낮간지러운 풍경을 펼쳐놓은 목적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뱀새를 퍼워 민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역도는 자기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각계층의 목소리를 들겠다고 하였지만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골라가며 하였다. 경제는 날로 더욱 망가지고 백성은 살기 힘들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고있지만 역도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보듬어줄 대신 제벌만 살찌우는 정치를 하고 살려달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는 데만 몰두하고있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바라는데 역도는 집권해서 제 처가권과 측근들만 감싸주고 내세우는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부》를 만들고 저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은 다 정치보복과 탄압의 파격으로 삼았다. 민심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만 역도는 미국은 물론 심나라속속들라도 손잡고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반인민적, 반민족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은 파국의 진멸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윤석열퇴진!》의 함성이 남조선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결국 역도가 자기를 분철하려고 고안해낸 출근길기자회견이라는것이 속에 없는 한갓 기만적인 연극이라는것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오히려 그 출근길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미숙아로서의 역도의 추악한 본색이 더욱 드러나고 하여 여론의 조소와 야유, 지탄의 대상으로 되게 되었다. 역도가 얼마나 체신머리없는 정치적이둔아, 해피러운 소리를 많이 하던 역도가 자기를 위해 만든 출근길기자회견을 왜 없애지쳤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엔 윤석열역도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정치광대국인 출근길기자회견마저 집어던진데는 자기에게 엇서서 나가는 언론을 길들여 권력의 시너로 만들려는 흉심도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언론과 각계층이 《윤석열이 집권이후 주민들과의 령계의 상정으로 내세웠던 출근길기자회견을 언론과의 마찰을 구실로 중단한것은 모든 언론사를 향한 직접적인 적대시전이다.》, 《윤석열이 출근길기자회견으로 인기를 올려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잃는 점수가 더 많아지자 기자들을 피해다니고있다.》, 《이번엔 윤석열이 미국에 찾았을 때 내뱉은 낫트거운 막말을 폭로한(MBC)와의 언쟁을 문제삼아 출근길기자회견을 중단한것은 언론의 자유를 떠들어온 윤석열의 말과 모순된다. (MBC)와의 갈등을 구실로 내댈고 언론들을 길들이려고 하고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것이다.》라고 비난하며 단죄하고있는 것은 출근길기자회견을 중단한 역도의 속심이 무엇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역도가 제가 만든 출근길기자회견까지 중단하며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언론은 이것을 이처럼 더 큰 조소와 규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민심과 여론도 안정에 없이,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출도 모르고 무지막하고 동맹한 망동만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하다. 민심과 역행하는 위선자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오영철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6)

락랑문화시기의 발전된 그릇제작기술

이러 우리는 용기류구획으로 참관을 이어갔다. 남경회 책임강사가 락랑문화시기의 용물들 가운데서 용기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용기류들은 만든 재료에 따라 도기류와 칠기류, 금속 용기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신된 도기류에는 고조 선후기 이른시기부터 쓰여온 화분형단지와 배부른단지, 목긴단지, 비문비지, 잔과 귀잔, 접시, 보시기, 쟁반, 병 등이 있었다. 그중에

회전속도가 빠른 돌림판을 리용하여 만들었기때문에 가는 흠줄이 나있는것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그릇제작기술이 높은 발전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남경회 책임강사는 이야기하였다.

유적에서 발굴된 칠기류들은 나무에 옷칠을 하여 만들었기때문에 무덤에서 오래 경과하면서 심히 손상되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각이한 옷색감으로 사선무늬, 식물무늬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짜인 구조로 장식함으로써 하나의 공예품을 런상시키는 칠기류들은 락랑문화시기부터 옹공예술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수 있게 하였다.

금속용기류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청동그릇들이었다. 청동그릇들에는 잔과 굵잔, 접시, 굵접시, 바리, 대접, 쟁반, 버치, 가마 등 형태가 다양한것들이 있었는데 앞서 도기류에서 본 화분형단지, 배부른단지와 모양이 별반 다른없는 쟁기새를 가진

것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남경회 책임강사는 이것은 락랑문화창조자들이 조상전래의 정서적미감과 기호에 맞게 청동그릇을 만들어 썼다는 사실을 반영하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청동그릇들이 크기와 모양이 여러가지로 세분화되어있는것은 당시 청동야금업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전신대에 놓여있는 큰 그릇을 가리키며 설명해주었다. (이런 모양의 그릇을 주로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평양체육단의 물에뛰어들기감독 최성희 그는 선수후비들을 선발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고 과학적인 교수훈련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다. 그는 선수들의 체질적특성과 체육발전수준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그가 완성한 훈련방법들은 체육실천에서 은을 내고있다. 최성희감독은 2017년에 이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정보화열풍을 더욱 배가해준 전람회

공화국에서 정보산업성 정보화국의 주최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2》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 밑에 고정자료를통신망과 이동자료통신망에서 가상전람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전람회에는 인민경제 부문별 및 도급단위들뿐 아니라 수산업

개의 성, 중앙기관들과 시, 군(구역)급단위들도 많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더욱 특색 있었다. 많은 도들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정보화성과들을 내놓았으며 남포시와 순천시, 라선시 등의 인민정권기관들과 평양시 락랑구역, 대성구역, 평안남도 문덕군 등 시, 군

올려세운 성과들이 천수백건이나 출품되었다. 한편 전람회를 통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개발된 가치있는 정보화성과들을 하루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 일꾼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조선의 국경인 풍산개와 관련한 문화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여기에는 풍산개를 기르고 길들이는 과정, 풍산개를 리용한 사냥관습, 풍산개를 주제로 한 소설, 영화, 미술 작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작품 등이 종합되어 있었다.

풍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며 인민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2》는 온 나라에 정보화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첨단기술개발에 활력을 더해주고 정보화의 성과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이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최근 공화국의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에서 2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치있는 창조물

생각했던것보다 덕손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약삭빠르게 끊어뜯은 재물을 감쪽같이 빼내오곤 몽땅 바꾸다니...

이제는 덕손이 동헌방에서 나오면 행차가 떠날것이었다. 동헌의 앞뜰에서는 하인들이 덕손의 짐을 마차에 싣느라고 분주했다.

관청을 나선 풍검은 길을 오가다가 덕손의 행차와 맞다들러 길옆에 쏠아있던 동경사람들의 눈길에 여간 매섭게 차돌아갔다.

눈을 밝게 하는 마싸지

기상후 다리를 쭉 펴고 두 발가락들을 당기면서 두손바닥을 마주 대고 2~3분간 비빈다. 다음 코등을 2~3분간 비비고 두귀를 두손으로 2~3분간 비빈다. 다음 두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목에 가져다대고 앞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좌우 허

리운동을 2~3분간 반복한다. 6개월간 이 운동을 한 결과 몸무게 1~3.5까지 기던 46~56살사이의 사람들속에서 안경없이 바늘에 실을 꿰게 되고 신문도 볼수 있게 되었으며 협심증으로 부정맥이 오던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도 근시병감이란 감투를 썼으니 말이다. 자기도 백성이 맘몰려 마련한 죽목을 타먹는 벼슬아치중의 한사람이라는 새삼스러운 생각에서 풍검은 덕손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누렸다.

그때가 되어서야 덕손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약삭빠르게 끊어뜯은 재물을 감쪽같이 빼내오곤 몽땅 바꾸다니...

관청을 나선 풍검은 길을 오가다가 덕손의 행차와 맞다들러 길옆에 쏠아있던 동경사람들의 눈길에 여간 매섭게 차돌아갔다.

기암우에 또 기암이라 천경만경 덧쳐워져 첩첩층층 푸른 창공 치솟으며 높이 솟네 수려한 봉이마다 절승경개 비졌으니 천마산이 분명토다 명산중의 명산이니

속담과 뜻

◆ 공지에 빠졌을 때에는 줄행랑이 상책이다. 대항할 힘이 없어 공지에 빠졌을 때에는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것이 제일가는 계책이라는 뜻으로서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는 일시 그 자리를 피하는것이 좋은 수라고 이르는 말. ◆ 기러기도 경솔히 섬에 내리지 않는다. 하찮은 날짐승의 하나인 기러기도 섬에 내릴 때면 공중을 맴돌아 빙빙 돌면서 매우 조심성있게 내린다는 뜻으로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문답

《문의》와 《질문》 단어 《문의》와 《질문》은 모두 묻는다. 물어본다는 뜻에서 같은 말이나 《문의》는 물어서 서로 의논하는것이라 《질문》은 알아보거나 밝히기 위하여 묻는것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어 《문의》는 이미 알고있

문답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문답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문답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문답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

문답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병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서 고개를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오늘은 한해가까이 묵고있던 여기 동경의 판소를 떠나가는 날이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출세해가는 동경류수 리덕손의 행차와 일행을 함께 해야 하였다. 김은 판관을 걸치고 상투를 머리에 사모를 쓰고난 풍검은 방문을 열었다. 긴 밤방문밖을 감돌던 청신하면서 도 쌀쌀한 기운이 확 안겨들었다.